

당신을 마이너라

글 · 곽형모 edforum@paran.com

장기하와 얼굴들, 전위예술가, 독립영화집단, 정약용, 조봉암, 노무현, 비정규직 노동자, 전태일, 중소기업 사장, 구멍가게 주인, 시골사람, 촛불시민, 김예슬, 인문학 하는 사람, 아픈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필자가 기대하는 답이 있지만 그렇다고 답이 하나는 아니다. 여기서 기대하는 답은 '소수자' 다.

그렇다면 소수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소수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타자화된 인간, 즉 한 사회의 공동체에 적을 두지 못하고 부유하는 무적자 또는 그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변화 된 소외자'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그들은 근대적 표준화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다. 즉, 지배적 척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소수자는 대체로 유색인, 화

교, 이주노동자, 혼혈인, 국제결혼한 여성, 동성애자, 사투리 쓰는 사람, 여성, 장애인, 노인, 철거민, 무학자 등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다수자는 백인, 남성, 이성애자, 본토박이, 건강한 사람, 지식인, 표준어를 쓰는 사람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누가 소수자인가를 획정하기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소수자는 말 그대로 소수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숫자로 따지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과연 소수자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남성은 모두가 다수자인가?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떤가? 비정규직은 현재 700만 정규직보다 많은 800만 명이다. 이들도 소수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따지면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게 된다.

도대체 누구는 소수자이고 누구는 아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들뢰즈는 집합이나 상태로서의 '소수성' 과 생성과 과정으로서의 소수화를 구분하고 있다. 들뢰즈에 따르면 소수자는 단지 수동적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는 집단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성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대중음악과 다른 길을 걷는 인



조봉암은 이승만 정권의 허구적인 통일 정책에 반기를 든 소수자였다.

디밴드, 자본권력에 순응해온 대학 질서를 거부하고 뛰쳐나온 학생, 무한경쟁 노선에서 탈출해 다운 시프트를 감행한 사람, 학원을 빼먹고 촛불 들고 나온 여고생, 인문학이 비실용적이라고 홀대받는 분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파고드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소수자다.

그런가 하면 같은 지식인이지만 소수자도 있다. 가령, 정약용이 속해 있던 남인은 조선후기 18, 9세기를 주름잡던 노론에 대해서 소수자였다. 남인도 노론과 같은 사대부였고 성리학질서를 벗어날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공리공담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는 계보로 따지자면 노론이었지만 껍데기뿐인 북벌론에 반기를 들고 청나라의 실체를 인정한 북학파, 소수자였다. 조봉암도 이승만정권의 허구적인 무력통일론에 반기를 들다가 죽임을 당한 소수자였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인구의 절반인 여성, 800만 비정규직은 소수자가 아닌가? 신자유주의에 점령당한 대학을 뛰쳐나온 학생이 소수자라면, 기껏해야 인턴 아니면 실업자 될 게 뻔한 대학이라도 포기하면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사람은 뭘까? 촛불소녀가 소수자라면 지친 몸 이끌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앉아 있는 여고생은 뭘까? 도대체

누구는 소수자이고 누구는 아닌가?

소수자성과 주변자성의 배합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범주로 보자면 모든 여성은 소수자이다. 단, 편차가 있을 뿐이다. 가령, 촛불 들고 나왔는데 아이가 학원에 잘 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는 엄마는 소수자성보다는 주변자성이 많은 사람이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안심할 건 못된다. 그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과 비정규직을 해고 안전판으로 내세우는 주변자성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사람마다 소수자성과 주변자성의 배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수자성과 주변자성의 배합은 사람이 변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소수자성보다는 주변자성이 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면서도 ○○○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주류에 대한 헛된 환상,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에 소수자성이 많은 사람은 허망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기공정과, 믿음을 가진다. 자기 안의 이중성과 당당하게 맞선다.

자기 스스로 소수자성을 밝히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coming out'이라고 부른다. 소수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왕따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변화는 늘 그런 변방에서 시작되었다. 소수자성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렛대이다.

우리는 5·18항쟁에서 그러한 소수자성을 본다. 5·18항쟁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했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은 노동자, 점원, 실직자, 구두닦이, 목수, 농마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수자이나 소수자이다.

주이, 막노동, 화물차조수, 식당 종업원 등 기층 민중이었다. 그들이 자기존재를 어떻게 깨달아 갔는지를 살펴보자.

“살면서 단 한 번도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자랐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반건달로 살다가 갑자기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젊은이가 고생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라는 말만 듣다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린 여학생은 헌혈을 하고, 할머니는 주먹밥과 죽을 내오고... 그런 거 봤소?”

“순찰을 도는데 사재기가 없더라 말이에요. 슈퍼 주인까지 먹고살 물건들을 풀었으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을 드는 일밖에 없다고 자연스럽게 느꼈어요. 처음으로 제구실을 하면서 살게 됐죠. 거기에서 자유라는 게 느껴지더라 말이에요. 틀에 매어 있다가 다른 틀로 확 풀려서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도망을 가요? 아니죠. 지켜야죠.” (한겨레 21, 제811호, '잊혀진 시민군, 도청 기동타격대')

5·18정신이 1980년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마르지 않는 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소수자성 때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민주화 역사 속에서 전국이 다 '광주' 였지만, 지금은 광주조차도 '광주'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은 소수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5·18정신의 핵심은 이러한 소수자성을 회복하는 것 아닐까.

모든 시민은 마이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시민은 마이너다. 아닌 척 할 것 없다. 알고 보면 당신도 마이너다. SSM에 쫓기다 들고 일어난 중소기업인들, 대기업의 수직적 수탈에 고통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도 소수자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소수자성과 주변자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한다. 아직 주류에 대한 환상을 버리진 못했을 것이다. 중소기업인들도 비정규직 및 이주 노동자들과 관계에서 모호하고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민주주의는 노인, 아이들, 여성들의 다양한 욕망을 인정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서비스 대상자로만 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아이들을 계몽 또는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본다. 이렇게 소수자성은 다중적 층위에서 상대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다.

근래 들어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등 이른바 소수자운동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사자성'이다. 자기대표성, 자기결정권과 생물학적 당사자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민에게 잠재된 소수자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당신은 마이너다.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

그러나 연대하라.

그렇다면 시민들의 소수자성이 새삼스럽게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민주주의의 척도는 소수자성이 얼마나 인정받고 풍부해질 수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소수자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소통하고 숨을 쉰다. 6월항쟁 이후 군사독재는

몰러갔는데 소수자성을 허용하지 않는 바위덩이 같은 '욕망독재'가 대신 들어앉았다. 모든 이들이 똑같은 욕망, 자녀교육, 대학, 취업, 결혼, 아파트, 자동차를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다. 다른 욕망은 바보 취급당하고 사람대접 받지 못한다. 다른 길은 없다. 아니 두렵다. 진보도 그 앞에서 무력했다. 진보를 외면한 청년들의 시선은 대신 삼성으로 향한다. 이제 한국 사회운동은 새로운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둘째,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회운영 원리가 필요하다. 근대적 인간은 대체로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을 어떤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일반화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리고는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싸잡아서 타자화 하려고 한다. 모든 것을 동일성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가령, 강의 평균 수심이 1m라고 하자. 그러나 평균수심만 믿고 걸어서 이 강을 건너기는 어렵다. 강 한복판에 수심이 3m 되는 구덩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구덩이는 특정한 '소수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소수자성에게도 해당된다.

셋째, 질서를 바꿔가야 한다. 김규형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세기 동안의 포악한 극우 독재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했지만 정신이나 영혼까지 망가뜨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화도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놈의 신자유주의는 불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과연 그럴까. 노론은 17세기 말엽 숙종 때 남인 처벌에 대한 입장 때문에 서인 내부에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갈라져 나온 이후 300년 동안이나 살아남았다. 그들은 경종 때 소론에 잠시 정권을 빼앗겼던 것을 제

외하고는 조선 멸망 때까지 정권을 장악했다. 조선 말 노론 일부 세력은 외세에 맞서 성리학 사회를 수호하는 위정척사 운동에 가담했지만 다른 일부는 일제에 협력해 망국에 가담했다. 이런 노론 출신 일부 학자들은 일제 때 조선사편수회를 거쳐 해방 후에도 한국 사학계의 주류가 된다. 노론 질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 사회운동은 겨우 10년, 20년동안 구축된 신자유주의 질서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싸우면 권력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질서는 바뀌지 못한다. 사회운동은 300년 묵은 질서와 싸워야 한다. 우리들 안에 집단무의식처럼 도사리고 있는 '노론무의식' '노론질서'와 싸워야 한다. 그러한 질서를 누가 바꿔가겠는가. 주류가? 아니면 '소수 집단'이? 모든 시민의 소수자성에게 변화의 지렛대를 맡겨야 한다.

모든 시민에게 소수자성이 있다면 소수자는 이미 소수자가 아니고 다수자다. 그런데도 '다수자'는 늘 마이너 대접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소수자성의 본질은 다수자의 자리를 차고앉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는 단순히 다수자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소수자인 것이 아니라 다수자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수자다. 소수자성의 본질은 무한한 창조성이다. 그러한 소수자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자기성찰이다. 그리하여 시민들 스스로 자기 안의 크고 작은 소수자성을 드러내고 연대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시민교육의 몫 아니겠는가.

글 **곽형모** | NGO교육포럼 공동대표